

2024 CMSS FESTIVAL II & III

창악회 창립 66주년
정기발표회

II

2024. 5. 7.(화) 19:30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김시호 · 최진석 · Marsel Nichan
탁현욱 · 류창순 · Jia Guoping

III

2024. 5. 8.(수) 19:30

푸르지오아트홀

신지수 · 양민석 · 조영미 · 최진화
이은미 · 신숙경 · 이귀숙

PROGRAM

김 시 호

Bleiglasfenster for Piano

..... Piano 서형민

최 진 석

Duo II for Violin & Piano

..... Violin 엄희원 / Piano 천슬기

Marsel Nichan

Ceremony for Flute, Clarinet, Bassoon, Violin & Piano

..... Flute 권영인 / Clarinet 김 욱 / Bassoon 표규선 / Violin 김나현 / Piano 이선옥

- INTERMISSION -

탁 현 욱

Fata Morgana for Piano Trio

..... Violin 전유진 / Cello 조여은 / Piano 전유라

류 창 순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for Flute, Clarinet, Violin & Cello

..... Flute 권영인 / Clarinet 김 욱 / Violin 김주은 / Violoncello 우미영

Jia Guoping
(贾国平)

Scattered Shades for Flute, Clarinet, Violin, Violoncello & Piano

..... Flute 권영인 / Clarinet 김 욱 / Violin 김나현 / Violoncello 우미영 / Piano 이선옥



김 시 호

1987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고등학생 시절 작곡 영재교육을 통해 15세에 작곡의 길을 찾았다. 2014년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를 졸업 후,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에서 석사 그리고 독일 뮌헨 국립 음대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그의 작업은 악기를 통해 특정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에 집중하고, 악기의 구성 및 작곡기법을 통해 그 대상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실험한다. 그의 작품은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독일, 노르웨이,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연주되었다.

Bleiglasfenster for Piano

Bleiglasfenster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의미한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프레임과 유리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의 틀이 되는 거칠고 두꺼운 느낌의 프레임은 다채로운 색깔과 불규칙적 형태를 가진 유리조각들과 극 대비된다. 이 작품은 스테인드 글라스의 상반된 두 가지 특성에 매료되어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먼저 유리 조각의 특징을 음악화해 보았다. 유리가 가진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을 조각하듯 짧은 소리로 구성했고, 빛이 투과될 때 화려한 색깔이 드러나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양한 종류의 화음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그리고 프레임의 볼드한 특성과 면을 분할하는 선의 형태를 표현하는데 집중하였다. 강렬한 느낌을 과감한 엑센트와 불협화음을 통해 나타냈고, 강한 소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작품을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게 한다. 이렇듯, 스테인드 글라스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표면적 광채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 영혼에 투영되는 절대적인 빛을 표현하는 것이 작곡 의도이다.



최 진 석

상명대학교와 연세대학원에서 작곡으로 각각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작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4회 바젤작곡콩쿠르3위와 제39회 중앙음악콩쿠르1위에 입상하며 국내외 유럽에서 작곡가로서 빠르게 이름을 알렸다. 이 밖에도 세로츠키 국제작곡콩쿠르1위, 카를로비치 국제작곡콩쿠르2위 입상, 레이놀작곡상 수상을 비롯하여ARCO한국창작음악제, 서울음악제, 대구국제 현대음악제와 같은 국내 주요 음악제에서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아 우현예술상, 최근에는 대한민국작곡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바젤심포니오케스트라(스위스), 슈체친필하모닉오케스트라(폴란드)와 같은 정상급 단체에 의해 연주되어 오고 있다.

Duo II for Violin & Piano

Duo II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편성으로 이루어진 나의 두 번째 작품이다. 첫 번째 작품(Duo I)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대화 콘셉트에 집중하는 반면, 이번 작품(Duo II)은 바이올린의 독주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다. 빠른 템포에서의 도약과 강한 다이내믹을 동반한 16분음표(동기1), 음색의 변화, 트릴, 꾸밈음을 동반한 지속음(동기2)과 같은 바이올린의 비루투오소(virtuoso)적인 음악적 동기가 곡의 중심소재로 사용되었는데, 이 주제 동기들은 곡 전반에 걸쳐 반복과 변화를 거듭한다. 바이올린의 움직임은 더욱 두각 시키기 위해 피아노는 주로 바이올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Marsel Nichan

마르셀 니찬은 스톡홀름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음악가이다. 그는 벡세(Växjö)의 한스 파르멘트 (Hans Parment)에게서 작곡 공부를 시작했으며, 벡세 문화원과 린네우스 대학교 (Linnaeus University)에서 공부했다. 또한 보엘 린드베리 (Boel Lindberg)에게 음악학을, 안데르스 블롬크비스트(Anders Blomqvist)와 마르쿠스 랑괴(Marcus Wrangö)에게서 전자음악을 공부했고 스톡홀름의 EMS(전자음악스튜디오)와 필킹겐 (Fylkingen)에서 활동했다. 마르셀은 자신의 음반회사인 Nichan Records를 운영하며 여러 음악단체에서 프로듀서 및 기획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대음악협회 Media Artes의 회장이자 현대문화협회 Nuova Arte의 창립자이자 예술감독이다.

Ceremony for Flute, Clarinet, Bassoon, Violin &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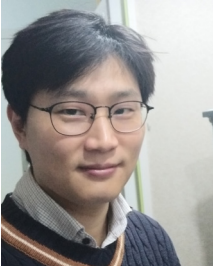


탁 현욱

서울예고(사사: 강은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사사: 이영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사사: 김성기, 유병은, 이영조)를 졸업하고 빈국립음대 작곡과에서 대위법과 작곡(사사: Dietmar Schermann), 오케스트레이션(사사: Ertuğrul Sevsay), 작곡(사사: Michael Jarrell)을 공부하고 학사,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독일 바이마르 현대음악제 작곡콩쿠르에서 2위, 청중상을 수상하였으며, 벨기에 Sorodha 국제 작곡콩쿠르에서 특별상, 청중상을, ISCM 폴란드 지부에서 주최한 Kazimierz Serocki 국제 작곡콩쿠르에서 3위,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수원대, 장신대,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출강하고 있다.

Fata Morgana for Piano Trio

Fata morgana는 우리말로 신기루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이다.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하면서 생기는 자연 현상이다. 더운 여름 날 아스팔트 도로에서 물이 고여 있는 듯한 현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기루에는 상방굴절 신기루, 하방굴절 신기루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신기루의 여러 특성들을 곡의 주요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곡의 시작부분은 신기루의 발현, 중간 부분은 전개, 마지막 부분은 사라짐을 묘사하고 있다.



류 창 순

류창순은 주로 자아를 비롯해 사람을 관찰하며 갖는 내면적 의식(意識)과 심리 등을 바탕으로 음악을 풀어낸다. 심리음향과 지각·인지심리 등에 관심을 두고 소리와 음악에 대한 지각적 인식과 마음(심리)의 작용을 탐구하고 있다.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for Flute, Clarinet, Violin & Cello)

1. 받아들임(受容) 2. 끈(紐帶) 3. 보잘것 없지만 4. 일상의 풍경 5. 꼬다와 꼬다리(coda and codetta)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데전서 4:4. 개혁개정)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런 줄만 알았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아등바등 살아간다. 그러다보면 정작 내가 가진 것을 잊고 살아간다.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간다. 뒤늦게나마 감사함으로 주위를 돌아보니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던 수많은 상(像)들 가운데서 항상 곁에 있던 참이 나와 마주한다. 일련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다시 새 소망을 품고 살아본다.

이 곡은 작곡가로서 그동안 외면해온 다장조 스케일을 모티브로 썼다. 다장조 스케일은 가장 쉽고 흔하다. 그래서 아름답다. 2023년 5월의 봄날 수원에서...

최근에 난 내 곡의 재연 기회가 생기면 그 연주회 전용으로 다소간의 편곡(Edition)을 한다. 그렇다고 원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같은 노래를 콘서트마다 편곡을 달리하여 선뎌기도 하는 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의 영향이다. 2024년 4월, CMSS 에디션 (2nd Edition)을 남기며



Jia Guoping (贾国平)

베이징 중앙음악원 작곡과 교수. 1963년 산시성 리시현(현 뤼량시)에서 태어났다. 10대 때 중국 전통현 악기인 진후를 배우고 리시현 진가극단에서 진후 주역으로 활동했다. 이후 산시성 진가극 아카데미에서 진가극 음악을 공부했고 산시성 뤼량 문화원의 음악부장을 역임했다. 중앙음악원 작곡과를 졸업 후 교사로 재직하다 1994년 독일학술교류처(DAAD)의 장학생으로 독일 슈트트가르트 국립음대에서 롤프 험펠(Prof. Rolf Hempel)과 헬무트 라헨만(Prof. Helmut Lachenmann)에게 작곡을 사사하였다. 1998년 중국으로 돌아와 중앙음악원에서 강의를 하였고 2006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아궈핑의 작품은 실내악, 관현악, 민속관현악, 무용극 등 다양하다. 그의 작품은 아르디티 콰르텟, 토론토 뉴뮤직 앙상블, 도이체 심포니, 뮌헨 필하모닉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앙상블과 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 되었고 악보 대다수는 독일의 Sikorski에서 출판되었다. 2007년 중국 ConTempo 작곡 콩쿠르를 창설했고, 2011년 베이징 앙상블 ConTempo를 창단했다.

Scattered Schades (竹影萧疏) for Flute, Clarinet, Violin, Violoncello & Piano

지아궈핑은 1997년 독일 유학 시절, 작곡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껏 몸에 밴 음악언어와 작곡 방식으로부터 탈피하는 이성적인 디자인과 비일관적인 음향 조합의 작품을 시도했다. 이 미공개 습작은 자기 창작 방식의 일대 전환이었기에 그에겐 작곡 과정에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시종일관 중국 고대 수묵화의 이미지에 맞추어 음악을 표현했었다. .

‘죽영소소(竹影萧疏)’는 그 습작구조를 바탕으로 10년 전 새로 쓴 작품으로 작곡가는 중국 전통 회화의 허와 실의 관념을 음향 구성의 원칙으로 삼았다. 음악어법에서 허와 실은 서로 다른 요소의 상호작용 및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구현되는데 전곡을 관통하는 다양한 음색 및 다이내믹으로 짜인 직조패턴의 음향 양식, 정적인 리듬과 동적인 리듬 사이 및 서로 다른 템포 사이의 자유로운 변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곡은 중국 전통예술 특유의 여백의 미(美)와 정숙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서형민 | Piano

- 2021 독일 본 베토벤 국제 콩쿠르 우승 및 3개 특별상 수상
- 2018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우승
- 2016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
- 세계적 권위의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신인상을 2022 한국인 최초로 수상 데뷔 독주회, 뉴욕 필하모닉과 서울시향,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슈타츠키펠레 할레 등 협연
- 현) 하노버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사사:아리에 바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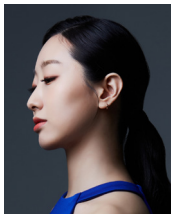
엄희원 | Violin

-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
- 예일대학교 석사, 미시간대학교 박사 졸업
- 현) 이화여자대학교, 예원, 서울예고, 경기예고, 선화예고 출강



천슬기 | Piano

- 독일 뤼베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프랑스 Ile de Piano 국제콩쿨 1등 외 국내·외 다수 콩쿨 입상
- 뤼베크 국립음대 강사 역임
- 현) 서울대, 한세대, 경성대 출강 및 명지대 객원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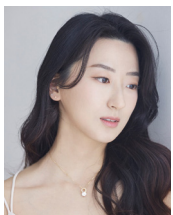
전유진 | Violin

-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빈 국립음악대학 학사 우수, 동 대학원 석사 최우수 졸업
- R. Strauss Violin Sonata 미니 앨범 발매
- 현) 국악양상블TALE[타래] 멤버, 양상블S 멤버, 헤르첸 스트링 콰르텟 멤버, 한독 클래식음악협회 이사, 선화예술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 고양예술고등학교 출강



조여은 | Cello

- 선화예중, 선화예고 졸업, 독일 뤼베크 국립음대 포디플롬 및 디플롬 졸업
-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마스터과정 졸업
- 독일 뤼베크 시립교향악단 준단원 역임
- 선화예고 양상블강사 역임
- 현) 선화예중 실기강사, 영화초 오케스트라 강사, 헤르첸 스트링콰르텟 멤버, 라움뮤직 멤버



전유라 | Piano

-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MDW) 학사 및 석사 졸업
- 이태리Treviso 국제콩쿨, 브람스 국제콩쿨, 음악교육신문사 콩쿨 등 입상
-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독주회를 비롯,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에서 두 번째 독주회, 롯데 콘서트홀, 영산아트홀 등 여러 홀에서 솔로 연주 및 실내악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 활동
- 군포 프라임 오케스트라, 뉴서울 오케스트라 객원 단원 역임, KCO 음악캠프 반주자 역임
- 현) 고양예고 출강, 독주회 전문 반주자 및 실내악 연주자로 활동 중

316앙상블

2011년 창단하여 올해로 13주년을 맞는 316앙상블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공부하고 활동했던 실력파 연주자들로 결성된 연주 단체다. 창립 멤버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함께하여 오랜 경험과 호흡으로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소통하며 연주·창작·연구·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수많은 작곡가 및 창작단체와 다양하게 협업하며 한국 창작 음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예술의전당’과 같은 전문적인 무대뿐 아니라 교도소, 군부대, 요양원, 유치원 등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다채로운 연주 활동으로 무대의 귀천이 없음을 실천하고 있다.



건강한 문화가 시대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문화는 건강한 예술인들이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믿기에 316앙상블은 늘 건강한 앙상블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삶이 예술이 되기를 꿈꾼다.



권영인 | Flute

-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 예비학교,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서울대 박사수료
- Internationale compétition di padova 관악부분 전체 1등
-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솔로 리사이틀 및 협연
- 앨범 <Belle Balade> 발매
- 서울대 Studio2021 상임단원, 동아대 강사, KC대학교 교수 역임
- 서울시향, 인천시향, 충남도립교향악단 객원 역임
- 현) TIMF 앙상블, 316앙상블 단원, 삼육대 영재교육원 출강



김 욱 | Clarinet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국립음악원, 에브리 음악원 졸업
- 프랑스 쥘스빌리에 음악원 실내악과정 졸업
- 프랑스 U.F.A.M 국제 콩쿠르 실내악 부문 1등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신여대 강사 역임
- 현) 삼육대 영재교육원, 목원대 외래교수, 316앙상블 리더



김주은 | Violin

- 서울예고, 한양대 음대 졸업,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 독일 트레몬타나 앙상블 단원, 윈스터 시립교향악단 정단원 역임
- 서울 오케스트라(사), 코리아 제이드 오케스트라, 베세토 오케스트라 객원악장 역임
- 현) 서울교육대, 선화예중·고, 계원예중·고, 경기예고, 인천예고 출강, 의왕시필아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콰르텟 수 멤버, 비아트르앙상블 리더, 316앙상블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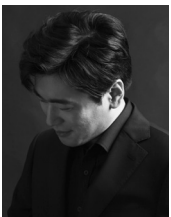
우미영 | Cello

- 예원학교, 서울예고, 이화여대 음대 관현악과 수석졸업
- 미국 인디애나 음대 석사 및 Performance Diploma 졸업
- 음악춘추 콩쿨 1위, 스트라드 콩쿨 2위, 성정 콩쿨 은상
- 인천시향, 춘천시향,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출연
- 현) 이화여대, 삼육대 영재교육원, 계원예중, 인천예고, 안양예고 출강, 316앙상블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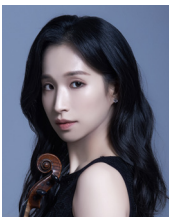
이선옥 | Piano

- 프랑스 에콜노르말 음악원 피아노 및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에브리 국립음악원 졸업
- 러시아 게르첸 국립음대 박사(PhD),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이수
- 한국일보, 경향신문 콩쿨 1등, 한국음악협회 신인음악회 1등, 프랑스 Leopold Bellan 국제음악 콩쿠르 2등
-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등 국내외 독주회, 협연 및 현대음악 전문연주자로 활동
- 선화예중·고, 계원예중, 동의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 현) 삼육대 영재교육원, 계원예고 출강, 316앙상블 단원



표규선 | Bassoon (객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졸업
- 동아음악콩쿠르 1위
- 코리아 바순 솔리스트 앙상블 리더
- 서울대학교 전공실기 및 실내악 강사
- '08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김나현 | Violin (객원)

- 예원학교, 서울예고 졸업,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학사,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 독일 Folkwangpreis 콩쿨 관현악부문 전체 1위
- 독일 하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종신악장 역임
- 현) 춘천시향, 원주시향, 전주시향, 천안시향, 과천시향 객원악장, 앙상블토니카, 아벤트 로트, 라네스앙상블, 몰토뉴성악앙상블 정단원

PROGRAM

신 지 수 **Except Atoms and the Void** for Viola & Geomungo
..... Viola 임혜진 / 거문고 최제인

양 민 석 **Rapture** for Woodwind Quartet
..... Flute 오지선 / Oboe 이현욱 / Clarinet 김민욱 / Bass Clarinet 김 욱

조 영 미 소리와 타악기를 위한 **노병유고주 (老病有孤舟, 정철 詩)**
..... 소리 김소원 / 국악타악 최영진

- INTERMISSION -

최 진 화 **무궁 (無窮)** for Oboe, Clarinet & Horn
..... Oboe 유예동 / Clarinet 윤보라 / Horn 조안나

이 은 미 **String Trio**
..... Violin 류경주 / Viola 최하람 / Cello 송혜주 / Conductor 서장원

신 속 경 **전쟁 속의 어머니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詩)** for Soprano, Violin & Cello
..... Soprano 김현희 / Violin 김유경 / Cello 윤석우

이 귀 속 거문고와 타악2인을 위한 **Perpetual Motion**
..... 거문고 강태훈 / 팽과리 김태준 / 장구 함동우



신지수

신지수(1981년생)는 개념예술에 음악을 접목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많은 작곡가이다. 서울대학교(학사) 음악대학,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석사) 및 영국 사우스햄턴 대학(박사)에서 유럽 전통의 서양음악 작곡을 공부한 후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창악회 홍보부 임원, ISCM 한국지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문화+서울 잡지에 4년간 칼럼을 기고하였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Except Atoms and the Void for Viola & Geomungo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있으며, 그 외의 것은 허공이다”라는 가설에서 더 나아가, “원자와 허공 외에는(except atoms and the void)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추까지 하는 루크레티우스(Titus Lucretius Carus)의 주장에서 제목과 작품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했다. 이 내용은 저자가 라틴어로 쓴 총 6권으로 이루어진 긴 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De Rerum Natura)” 중 제 2권에 나오는 내용이며,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바로는 원자 자체도 허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나, 기원전 97(또는 98)년의 주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자연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고로 모든 것을 자신 마음대로 주무르는 조물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나 두려움 또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다.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사실상 허공 속 원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거문고와 비올라를 위한 음악으로 표현하였으며, 허공과 활발한 움직임, 이 두 가지 요소의 조화와 대립을 다양한 방식으로 음향화 하였다. 비올라는 스키프다투라로 조율되었고(A를 A1/4#로 변경, C를 B로 변경), 거문고의 조현은 비전통적인 음정들(1, 4, 5, 6현 = D1/4b, Bb, Ab, Eb)로 구성하였다.



양민석

작곡가 양민석은 조선일보 신인음악가, 범음악제, 컴퓨터 음악대회 (한국전자음악협회 주최) 등에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그의 작품은 Cincinnati, Florida, Princeton, Stanford, Kobe, Osaka 등지에서 연주되었으며, 근래에 그의 작품은 스코틀랜드에서 열렸던 국제색소폰 협회와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ICMC 2018에 연주되었다. 그는 가천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한 후, 미국 신시내티 음대 (University of Cincinnati, College-Conservatory of Music)에서 작곡과 컴퓨터 음악으로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가천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창악회, ISCM Korea, 한국전자음악협회, ACL Korea 회원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Rapture for Woodwind Quartet

이 곡은 특정 표제성을 지향하지 않지만 제목이 ‘Rapture’가 된 이유는 네 연주자가 단순한 동기와 음형들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진정 rapture가 아닐까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Rapture를 발음할 때 syllable의 조음이 마치 목관악기의 소리 발생처럼 연상이 되어서 정한 것이다. 작품에서 시작되는 네음(F E A F#)으로 구성된 동기는 조합과 변형을 이루면서 곡을 이끄는 주된 요소이며, 이는 확장된 음색에 대한 탐구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 번의 짧은 카덴차 같은 솔로 파트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어떤 형식미를 갖추기 위함은 아니고, jazz의 Bebop처럼 작곡가의 즉흥적인 생각을 나열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소 진부할 수도, 고전적일 수도 있는 동기와 발전이라는 모델을 택한 이유는 실험성보다는 연주자들 간에 앙상 불을 통한 합일성(unity)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조영미

서울대학교 작곡과 졸업 후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와 듀크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서울국제 컴퓨터음악제 및 한국여성작곡가회 정기발표회, ACL-Korea 국제음악제, 대한민국 실내악작곡제전과, International forum on Acoustical Ecology, High Score Contemporary Music Festival 등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 Sound SCAPE Festival에서 소프라노와 기타 퀸텟 위촉작품을 발표하였다. Singapore Asian Composers Festival에서 당선 작곡가로 선정되어 싱가포르 에스플라네이드에서 공연하였으며, 최근에는 New York City Electroacoustic Music Festival에서 소프라노와 피아노, 라이브 전자음향을 위한 작품을 발표하였다. 현재 전남대와 국민대에 출강하며 컴퓨터음악저널 : 에밀레의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소리와 타악기를 위한 노병유고주(老病有孤舟, 정철 詩)

“노병유고주(늙고 병든 몸 의지할 곳은 배 한 척 뿐)”는 송강 정철이 임금을 떠나는 길, 출세와 유배의 갈림길에서 강을 눈앞에 두고 건너기 전 아득하고 복잡한 심정을 그린 시로, 이를 가사로 하여 한국적 음색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정철 시인은 한글 가사문학과 임금에 대한 깨끗한 충정으로 유명하나, 그의 호탕함이나 예민한 감성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였다. 16세기 조선 중기 어지러웠던 시절, 그는 사직과 복귀, 파직과 유배를 수없이 반복하며 현실과 타협하거나 때로는 초연히 호방하였고, 유적인 정서와 직설적인 불평을 그대로 담아 노래했다. 판소리의 전통 편성과 주법을 바탕으로, 창과 고수의 관계, 인성과 타악기의 교차, 말과 노래로 장단이 이어지는 진행을 발전시켜 이 곡의 구성으로 삼고, 엇갈리고 마주치는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최진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미국 Peabody Conservatory에서 석사학위(M.M)와 박사학위(D.M.A)를 받았다. 유학기간 동안 Michael Hersch, Dr. David Smooke, Dr. Susan Weiss에게 사사하였으며, Wayward Music Series, Sideshow Fringe Festival, withhart.dance.project, Mina Cheon, Lindsey Bailey 등과 협업 작품을 발표하였다. 국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강사 역임, 소리목, 창악회, Baltimore Composers Forum의 작곡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무궁 (無窮) for Oboe, Clarinet & Horn

바다는 침묵의 동굴을 가지고 있다. 깊고. 조용하고. 고독한.

(The Ocean has its silent caves, Deep, quiet, and alone. - 나타니엘 호손)

‘바닷가의 파도’로부터 받은 영감을 오랜 시간을 들여 ‘소리’로 묘사하려 한 작품이다.

저 끊임없이 밀려오는 물의 움직임은, 인간의 일생에 비하면, 영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래도록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은미

독일 하이델베르크-만하임 국립음대를 최고점수로 졸업하였고, 독일 만하임시와 GEDOK이 주최한 ‘Im Rahmen der Frauenkulturtag1997’에 위촉되어 작곡발표회를 가졌다. 귀국 후에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Ph. D.)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여성작곡가회, 창악회, 21세기악회, ISCM, 작곡동인소리목 회원 및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 이사, 총신창작음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작품 발표를 해오고 있다. 국민대학교와 총신대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와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출강 중이다.

String Trio

이 곡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과 음색의 변화를 표현해보았다. 화성적으로 강하게 시작하여 모티브와 주제적인 선율이 다양한 음색을 통해 전개된다. 이때 화성적 부분과 선율적 부분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도 한 부분을 구성한다. 각 부분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모티브와 선율을 제시하거나 내재하고 있는 진행으로 각 부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스피카토 주법과 긴 음의 트릴을 활용하여 리듬적 통일성 안에 빠른 움직임을 특징으로 한다. 다양한 템포의 변화와 음색의 대비, 그리고 주법의 대조 등을 통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신 숙경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데트몰트 음악대학에서 석사를 마쳤다.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독일 데트몰트 미술관 개관식 작품으로 위촉되어 연주되었고 오페라 ‘민호와 까치’도 데트몰트대학에서 연주되었다. 그 후 미국 시카고에서 20년을 거주하는 동안 그녀의 시카고 심포니 현악사중주에 의해 현악사중주곡이 연주되고 챔버오케스트라곡은 링컨트리오와 벨기에 앙상블 등에 의해 연주되었다. 학위 취득 후 고국에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하였다. 2022년 귀국 후 신음악학회, 한국여성작곡가회, 창악회, ISCM, 베르타스 뮤지케 등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쟁 속의 어머니(비스와바 심보르스카 詩)

for Soprano, Violin & Cello

소프라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해 쓰여진 이 곡 <전쟁 속의 어머니>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1923-2012>의 시 <베트남>을 작사로 쓰여진 곡이다. 1960년대에 10년 이상 계속되었던 참혹한 베트남 전쟁 속에 쓰여진 이 시는 전쟁의 잔혹함 속에 아이들만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인의 세계의 소망과 함께...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민족주의/팽창주의의 욕망으로 도발된 우크라이나전쟁의 50만명의 사상자를 우리는 지금 2024년 또다시 지켜보고 있다.

이 곡은 전쟁 속 어머니들의 깊은 고통을 단순한 언어로 그러나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베트남> 시처럼 단순하고 직선적인 소프라노 멜로디와 표제음악적인 바이올린과 첼로의 반주/합주로 쓰인 곡이다. 뻔뻔스러운 잔혹함의 병사와 두려움에 떠는 어머니의 대화의 대립/대조적인 심리 표현을 나타낸 시의 내용처럼 곡은 진행된다. 한 명의 소프라노는 폭력적인 병사와 희생자로서의 어머니를 번갈아 노래하고 있다. 바이올린과 첼로는 전쟁 속의 잔인한 상황과 두려움에 떠는 어머니의 심리 표현을 강한 대조적인 모티프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베트남>

비스와바 심보르스카(1923-2012)

여인이여, 그대 이름은 무엇이나?-몰라요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 출신인가?-몰라요
왜 땅굴을 팠지?-몰라요
언제부터 여기에 숨어 있었나?-몰라요
왜 내 약지 물어뜯었느냐?-몰라요
우리가 당신에게 절대 해로운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걸 아는가?-몰라요
당신은 누구 편이지?-몰라요
지금은 전쟁 중이므로 어느 편이든
선택해야만 한다-몰라요
당신의 마음은 아직 존재하는가?-몰라요
이 아이들이 당신 아이들인가?-네. 맞아요



이 귀숙

제8회 안익태작곡상 대상 및 제4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대상 수상,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The 4th biennial Symposium and Festival in Cambridge, (2010) 등 다수의 초청 작곡가를 역임하였고, 미국 Ravello Records에서 “The Music of Lee Gui Sook” 음반이 발매되었다. 국립국악원 및 ARKO 한국창작음악제 국악관현악 등 다수의 관현악 작품이 공모 당선되었으며, 제32회 대한민국 작곡상 한국음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전통무속장단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토대로 현시대적 사고를 접목한 이 시대의 한국창작곡에 매진하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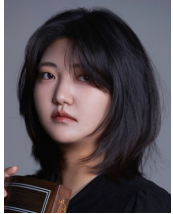
거문고와 타악2인을 위한 Perpetual Motion

이 작품은 영남지역의 대표 농악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진주 삼천포 12차 농악에 착안되어 작곡되었다. 거문고와 쇠(꽹과리) & 장구 등 3개의 악기는 빠른 템포의 농악가락 내에서 끊임없는 다양한 움직임(Perpetual Motion)을 펼치며 흥미롭게 연출되고, 특히 거문고는 쇠와 장구 장단을 토대로 타악기적 음향을 포함한 다채로운 악기 주법을 다각도로 표출하며 힘차고 절도 있게 장단 높음을 펼쳐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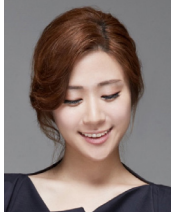
임혜진 | Viola

- 서울대학교, 뮌헨국립음악대학교 졸업 (Meisterklassendiplom)
- 동아음악콩쿠르 1위, 조선일보사 선정 신인음악가, 서울예고를 빛낸 사람상 수상
- Accademia Musicale Chigiana 재단에서 수여하는 “Banca MPS” 특별상 수상
-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강남대학교 영재원,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출강
- 현재 한독 클래식음악협회 이사, 인터스텔라 오케스트라, 앙상블 제라, 앙상블 더 브릿지 멤버



최제인 | 거문고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예술사 졸업
- 국립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졸업
- 제1회 세종의 얼 균화지음 경연대회 고등부 종합대상
- 제14회 전국악성육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일반부 장려상



오지선 | Flute

- 미국 New England Conservatory 학사 석사 장학금, 성적우수 졸업, Boston University 박사 졸업 (전액 장학금), Elizabeth Rowe, Cindy Meyers, Linda Toote, Julie Ranti 사사
- Boston Pops (보스턴 심포니), 토론토 심포니에타, 키치너 워터루 심포니, 워터버리 심포니, 서초 금요 음악회 등 협연, 카네기홀, 링컨센터, 보스턴 심포니홀, 로이툰스홀 등에서 솔로 연주
- Bergen Symphony Orchestra, Philharmonia Boston 수석 역임
- Aspen Music Festival, Spoleto Music Festival 등 참여
- 성남시향, 한경 arte 필하모닉,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뉴월드 필하모닉, 디토 오케스트라, 보스턴 리릭 오페라, 하트포드 심포니, 케이프코드 심포니 등 객원



이현욱 | Oboe

- 독일 Freiburg 국립음대 Diplom (KA) 졸업 (사사: Prof. Heinz Holliger), 독일 뮌헨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사사: Prof. Francois Leleux)
- Yehude Menuhin LMN 장학재단 Solo oboist 선정, 중국 시안 음악대학 초청 Masterclass 강의 및 독주회, 협연, 38th International Double Reed Society (영국) 초청 독주회, 예술의전당 주최 “2012 Great 3B series Bach” 연주 및 협연
- 현) 충남교향악단 수석, KME리더,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단원, Marigaux 아티스트,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 선화예고, 한국종합예술학교 겸임교수, 한양대 겸임교수, 연세대, 단국대 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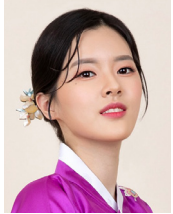
김민욱 | Clarinet

-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쾰른국립음대 석사,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Saverio Mercadante” 국제콩쿨 본선 진출
- 독일 Bergischenorchestra 단원 역임 및 강남심포니, 청주시향 객원수석
- 2018년~2019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단” 선정
- 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공연단원, 모모앙상블, 앙상블아인스, 선화예술중학교 출강



김욱 | Bass Clarinet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국립음악원 졸업
- 프랑스 U. F. A. M 국제 콩쿨 실내악 부문 1등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신여대 강사 역임
- 명지대, 이화여대, 한양대, 단국대 특강
- 현) 316앙상블리더, CMB567멤버,



김소원 | 소리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전수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 제34회 동아국악콩쿠르 학생부 판소리부문 금상
- 뮤지컬극단 <야성> 단원
- LA Zipper hall, SF Berkeley Art Museum외 다수 해외 연주



최영진 | 국악타악

- 중요무형문화재 봉산탈춤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전수자
- 시도 무형문화재 김제우도농악 이수자
- 한배아트컬처스 대표
- 재단법인 세향국악오케스트라 단무장



유예동 | Oboe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 졸업
-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Diplom KA졸업 및 실내악과정 졸업
-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다수 독주회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원, 성신여대, 선화예중·고, 경기예고 출강 및 역임



윤보라 | Clarinet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클리브랜드 음악대학 석사 졸업
- 중앙음악콩쿠르, 이화경향콩쿠르 입상
- 아스펜 페스티벌, 사라소타 페스티벌 장학생 참가
- 현) 예원학교, 덕원예고, 건국대 영재교육원 출강, 디아트윈 오케스트라 수석, 숨 앙상블 리더



조안나 | Horn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과 수석 졸업
-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출연
- 연세대학교 관악콩쿠르 1위, 서울대학교 음악콩쿠르 1위, 국민일보 한세대 콩쿠르 금관전체 부분 1위
- 서울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원시립교향악단 협연
- 현) 원주시립 교향악단 상임단원



류경주 | Violin

-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도블
- 프랑스 파리 국립 음악원 최우수 만장일치 졸업, 연세대학교 석사 졸업, 성신여대 박사 수료
- 음악저널, 한국일보 콩쿨 1등, 오사카 국제콩쿨, 런던 Grand Prize Virtuoso 국제콩쿨, Emuse 국제콩쿨 등 다수 콩쿨 입상
- 현) Vemo트리오, 가일 플레이어즈, 서울 솔로이스츠, 앙상블 누벨바그 및 앙상블 유니송 단원



최하람 | Viola

-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졸업, 줄리어드 음대 학사 및 석사 졸업
- 프랑스 파리 국립 음악원(CNR de Paris)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공주대학교 강사역임
- 현) 앙상블 블랭크, Ensemble Unissons 단원, 화음챔버오케스트라 멤버, 콜레기움 무지쿰 수석, 선화예중·고, 성신여대 출강



송혜주 | Cello

-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존스홉킨스 피바디 콘서바토리 석사 및 연주자 과정 졸업, 일리노이 대학교 박사
- The Plowman Chamber Music Competition, New York Young Artist International Competition, American Virtuoso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음연, TBC 등 입상
- 현) Bon Soloists, 앙상블 누벨바그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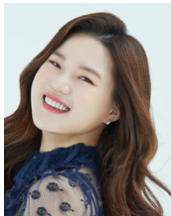
서장원 | Conductor

- 독일 Köln Rheinische 시립 음악학교 (작곡&음악이론) 수학
- 독일 Düsseldorf 국립음대 작곡과 졸업 (Diplom)
- 독일 Kassel 시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 졸업 (K.R mit Auszeichnung)
- 현대음악 작곡가 Trojahn, Murail, Popov의 작품 한국초연 지휘
- Romania Oltenia Philharmonic Orchestra 종신객원지휘자 (2011년~현)
- Romania Craiova Opera 극장 소속 지휘자 (2013년~현)



김현희 | Soprano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Biennio과정 졸업, 이태리 정부초청 장학생
- 오페라 La traviata의 violetta역, La Bohème의 Mimi역, Così fan tutte의 Fiordiligi, Pagliacci의 Nedda역, L'elisir d'amore의 Adina역, 오페레타 박쥐의 Rosalinde역 출연, Carmen의 Micaela역, Hansel und Gretel의 마녀역, Die Zauberflöte의 Papagena역 출연 및 다수의 콘서트
- 현)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중·고등학교, 덕원예고, 대원여고 출강 및 전문연주자로 활동



김유경 | Violin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우등졸업
- 프랑스 파리 에콜노르말음악원, 파리 시립음악원 (CRR de Paris) 최고연주자과정졸업
-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CNSMDP) 석사과정, 연주학 박사과정 졸업
- 성신여자대학교, 전남예술고등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강사 역임
- 현)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예원학교 출강, 현대음악앙상블 위로 멤버



윤석우 | Cello

- 프랑스 리옹국립고등음악원(CNSM de Lyon) 학사 및 석사 졸업
-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CNSM de Paris) 실내악
- 프랑스 블로뉴 시립음악원(CRR de Boulogne)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프랑스 Vatelot-Rampal, Epernay 콩쿨 1위, 포르투갈 CIMCA 실내악 콩쿨 2위
- 현)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앙상블 위로 멤버



강태훈 | 거문고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
- 서울대학교 석사 재학
- 제28회 KBS 국악대경연 현악부문 장원
- 제33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거문고 부문 금상
- 2023 신진국악실험무대 우수 작품 선정



김태준 | 뿡과리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
- 2023 국악창작곡개발-제17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 제41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타악부문 금상
- 2022 제7회 청춘열전 출사표 은상
- 제25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명고부 최우수상



함동우 | 장구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 및 동대학원 전문사 재학
- 공상명월 동인
- 2023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수상
- 2022 5월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Virtuoso' 설장구 협주곡 '소나기' 협연

차기공연

2024 CMSS FESTIVAL IV 창악회 가곡발표회

2024. 9. 9. (월) 19:30 일신홀

